

사라봉과 별도봉, 두 오름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



사라봉과 별도봉. 오른쪽은 사라오름, 왼쪽은 별도봉이다. 제주향에서 촬영.



별도봉 북측 바닷가에는 깎아지는 듯한 벼랑이 있다.

김찬수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63>

3부 오름

(122) 사라봉과 별도봉

근거없는 자기만의 주장들

사라봉은 표고 148.2m로서 제주항 동쪽 바닷가에 접한다.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고전에 사라악(沙羅岳), 사라봉(沙羅峯), 사라악(紗羅岳), 사라(沙羅), 사라봉(紗羅峰), 사라봉(紗羅峯)으로 표기하였다. 검색된 지명 표기는 고유어 사라, 한자표기 사라(沙羅)와 사라(紗羅)다. 고유어 '사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사라'라는 말은 지난 회에 다룬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해발 1300m 지경에 있는 사라오름과 이름이 같다. 사라오름의 '사라'는 '돌출하다, 두드러지다' 등을 의미하는 고대어에서 기원한다. 제주 고대어에서는 이보다 앞선 형태로서 '높은 산' 혹은 '돌출한 산'으로 쓰였을 것이다. 이 말은 한반도에 '수리'에 대응하고, 오늘날 봉우리를 지시하게 되었다.

사라봉은 마치 쌍둥이처럼 불어 있는 별도봉과 대비가 된다. 멀리서 바라볼 때 별도봉과 달리 봉우리가 돌출한 산이다. 별도봉은 표고 136m, 정상에서 북측 바닷가로 뻗어 내린 등성이가 깎아지는 벼랑으로 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고전에 '별

도악(別刀岳)', '화북악(禾北岳)', '화북악(化北岳)', '별도봉(別刀峰)', '별도봉(別道峰)'으로 표기했다.

이처럼 이름이 다양한 것은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신하기 어려워 발음하는 대로 따라 적으려니 이렇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별도봉을 한국지명 유래집에는 "베리오름이라고도 하는데, 베리는 바닷가의 낭떠러지를 뜻하는 벼루의 변음이라는 설이 있다"라고 했다. 이와는 달리 "별도(別刀)"나 "화북(禾北)" 등의 음

성형은 '별도' 또는 '벳뒤'를 나타내기 위한 한자 차용 표기이기 때문에 음성형이 '베리'와 거리가 있다. '베리'는 '별도'의 변음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있다. 모두 다 근거 없는 자기만의 생각일 뿐이다.

화북동 지명은 별도봉에서

'별도오름'은 '별도+오름'이 아니라 '별+도+오름'이다. 우선 '별'은 현대국어 '벼랑'의 조상형이라는 것은 이미 밝혔다. '별' 혹은 '별'에서 '벼랑'이 나왔지만, 지명에서는 벼로/벼루/벼리/벼론/비라/비례/비례/빙에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제주어에서는 좀 더 문화해 '벼-'를 '베-'로 발음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난다. 벼락을 벼락, 별로를 베랑, 벼룩을 베루, 벼르다를 베르다, 벼루를 베리, 벼슬을 베슬하는 식이다. 마찬가지로 '별-'은 '별-'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별(星)은 벨, 벌미를 벌미, 벼라벌을 베라벌 하는 식이다. 따라서 이 오름 이름이 '베리오름'인 것은 '벼리오름'으로 소급되므로 자연스럽게 해결됨을 볼 수 있다. 벼랑오름이란 뜻이다. 본 기획 더리벼리오름, 베릿내오름을 참조하길

수 있다.

그럼 '별도오름'인 것은 왜일까? '별'은 벼로/벼루/벼리가 축약한 형태이므로 '벼랑+도+오름'이 된다. 이 오름의 표기에서 '별(別)', '악(岳)'과 '봉(峰)'을 빼면 각각 '도(刀)', '화북(禾北)', '화북(化北)', '도(道)'가 남는다. 그중 '화북'의 '화(禾)'는 '화'라고 읽지만 뜻은 '벼'이다. '벼'는 제주어로 '벼'라고 발음하므로 훈음을 빌려 적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別(별)'과 같은 뜻이다.

'북(北)'은 '북녘' 외로 '뒤'라는 뜻으로도 쓴다. 그러니 '화북(禾北)'이란 '벳뒤'를 표현하고자 쓴 것이다. 어쨌거나 지금은 한자의 음을 빌려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화북'으로 읽고 있는 것이다. '화북(化北)'은 '화북(禾北)'의 다른 표기이다. 다만 '벼'라는 발음을 적기 위하여 '화(禾)'를 쓴 것인데 이 글자를 오래전부터 '화'로 읽어온 언어습관으로 인해 그 발음을 살려 썼을 것이다. 화북동의 지명은 이렇게 기원했다.

봉우리, 벼랑과 둘

이제 여기에 사용한 '北(뒤)'을 포함해 '도(刀)', '도(道)'만이 남는다. 인근 벨듯 개를 표기한 한자 지명을 보면 '별도포(別刀浦)', '별량포(別梁浦)', '화북포(禾北浦)', '성량포(星梁浦)' 등이 검색된다. 이 '별량포(別梁浦)'와 '성량포(星梁浦)' 역시 '別(별)'과 '星(성)'은 같은 말임을 알 수 있다. 벼랑을 나타내는 '별'을 나타내고자 동원한 것이다. 여기서 나머지 '梁(양)'이라는 글자가 어떤 암호를 숨겨놓은 마지막 한 글자다.

별도봉, 이 지명은 별도봉에서 기원했다. 별도봉에서 촬영.



김찬수

량(梁)이란 훈몽자회에는 '돌 량'으로 나온다. 바로 이 훈음 '돌'이라는 말이 핵심이다. 이 양(梁)이라는 글자는 특히 백제계 지명에서 출현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글자로 진(珍), 등(等), 월(月) 등과 함께 여러 지명에서 모두 산(山)과 령(嶺)에 대응하여 쓰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현대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적은 것이지만 실은 라(梁)은 '돌', 珍(진)은 '돌', 等(등)은 '들', 月(월)은 '돌'과 같은 발음을 빌려 쓴 글자다. 모두 '돌'을 표기한 것이다. 위가 평평한 지명에 쓰인다. '별량포(別梁浦)'와 '성량포(星梁浦)'의 라(梁)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놀랍게도 모두 다 '별둘개'로 소급되어 베리는 것이다. '벼랑으로 된 산을 배후로 하는 개'가 되는 것이다.

'돌'이란 여러 차례 다른 바처럼 돌오름의 '돌', 도레오름의 '도레', 다래오름의 '다래', 드라미의 '드라'와 같은 기원이다. '돌'이란 몽골어계의 고어로 평평한 지형을 지시한다. 몽골문어, 칼카어, 칼미크어에서 매우 유사한 발음으로 나타난다. 투르크이에서는 '뒤~뒷'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화북포(禾北浦)의 '뒤 북(北)'으로 나타난 것이다. '돌'과 '뒤'는 발음이 다르지만 같은 뜻이다. 사라봉은 봉우리오름, 별도봉은 벼랑이 있고 위가 평평한 오름을 지시한다. 대비지명이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제주시한림읍향우회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



향우회장 김동완

일시_ 2026년 2월 11일(수) 18:00

장소_ 아젠토피오레컨벤션

역대회장

초 대 회 장 신 행 철
2 대 회 장 故 김창도
3 대 회 장 양 우 철
4 대 회 장 김 강 우
5 대 회 장 흥 흥
6 대 회 장 흥 흥
7,8 대 회 장 흥 흥
9 대 회 장 임 용
직 전 회 장 고 용
<감 사>
김택보, 이남호, 강성숙

각리향우회장

귀덕1리 김희철	귀덕2리 이학승	귀덕3리 강학찬
수원리 김윤배	한수리 홍성규	대림리 김치중
한림1리 송대훈	한림2리 김성철	한림3리 양근호
강구리 강정진	상대리 양영휴	동명리 변용식
명월리 홍관표	금악리 양영근	상명리 장창윤
월림리 변성근	옹포리 고인협	협재리 최창해
금능리 양재영	월령리 고수은	비양리 강택수

여성회장 장여선 청년회장 강희탁
산악회장 김희철 골프회장 김영진



이남근(귀덕1리)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선정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선정
조용범(귀덕1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1급) 승진
강기훈(귀덕3리) 한국외국어대학교 제13대 총장 당선
장혁진(수원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관 승진
김병철(한수리) 한국전력공사 서귀포지사장 취임
최성두(한림1리) 제주특별자치도 부이사관 승진
김완철(한림2리)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취임
고동완(강구리) 국무총리 표창
박맹준(금악리) 녹조근정 훈장
강상현(상명리)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조영미(월림리) 사무관 승진

제주시한림읍향우회 회장 김동완
상임부회장 고수은 사무처장 변영진

향우회 사무실 전화 (064)745-0457
FAX (064)745-0458
e-mail hallim35@naver.com